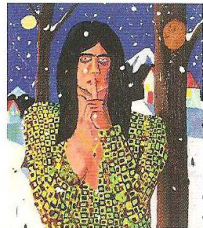


A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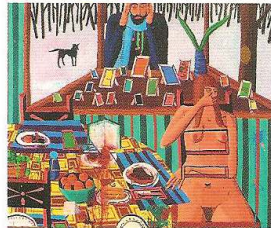
1

© Ryan Schneider 'Meal For Those Who Have Passed'



2

© Ryan Schneider 'Village Snow'



3

© Ryan Schneider 'On Looker'



4

© Ryan Schneider 'Hide Out'

© Ryan Schneider 'Night of Rust'



5

© Ryan Schneider 'Half Full / All Times Half Empty'



6

© Ryan Schneider 'Club House Bunter'

© Ryan Schneider 'Self Defense Etc.'

Story two.  
A dog night

#1

그들의 사랑은 캣과 캣의 사랑 같아. 늘 아슬아슬하지, 낮이면 그녀가 매가!  
그가 늑대가 되어 서로를 핏취지. 공중극예사들의 아찔함이 매일 반복된다니까!  
조용히네. 먹다 남은 게이크 부스리기, 늘 같은 장이 펼쳐진 책, 지지부진한 나이프  
별어질만도 한데 말이야. 창밖은 여전히 빙산이 녹지 않았구나. 아라, 들을!  
잘 건디던 꽃이 시들어버렸는걸.

#2

셋, 이제부터 드디어 바깥 나들이라고. 저 여자의 피부와 검은 머리칼을 좀 봐. 눈  
걸어가는 품이 흡사, 톤드라 지역에 처박혀 사는 눈의 여왕인걸. 아니야 눈사람의  
말겠다는 도굴꾼 같은데. 얼어붙은 벤치라. 빙판처럼 갈라진 두 사람이 앉기  
이번 산책길에서 저 여자의 독설은 참아내기 힘들겠어.

#3

나는 세상에서 당신의 '첫'을 가장 질투해. 그것은 당신의 잠든 얼굴에서 슬며.  
당신의 저녁 발걸음에서도 아닌 척하며 그림자에 얹혀버리는걸. 이미 당신 몸의 율  
당신의 관자놀이에서 파닥거리고 있어. 그 '첫'이, 그 찻을 수 없는 '첫'이라는  
당신의 낙인이 나에게도 형벌이야. 욕실 바닥에 쌓이는 머리카락을 막을 수!  
나는 그 '첫'의 붓물을 막을 수 없어. 염탐할 수도 없지. 세상에 '첫'을 새기고.  
아름다운 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자유로운 영혼도 없을 거야. 매일매일 수렁!  
우물거리고는 언제나 도망칠 뒷길을 바란한나는 건, 어쨌든 맞진 일야

#4

그가 나가떨어졌는걸. 술을 질펀히 마신 모양이야. 눈 속에 있을 그녀가 걱정된  
윗눈꺼풀과 이렛눈꺼풀 사이가 너무 먼 남자야. 그 깊은 눈으로 매일 양파 껍질들  
그녀가 힘든 것도 어쩌면 당연하잖아? 그는 매운맛을 즐기지.  
눈이 매워 우는 자신을 즐기고 있으니, 저 대머리를 위하여 그녀는 가발을  
저 대머리를 위하여 그녀는 모자를 골랐지. 저 대머리를 위하여 그녀는  
이발사와 잠까지 잤지. 저 대머리를 위하여 그녀는 장갑을 끼고 혼자서 밥을  
저 대머리를 위하여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을 비누마저 훔쳤는?

#5

하지만 그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 그녀는 그에게 알파카털로 짠 검은색!  
그는 벗겨벗는 것을 좋아했지. 그녀가 풀란넬 회색 바지도 선물했지  
그는 도무지 바지가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는걸. 그녀가 그에게 준 가장 좋은  
"나가버려"라는 거친 토크뿐이었지.

#6

아침에 일어난 그녀가 슬픈 표정을 짓네. 그녀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꽃대궁 속!  
화병의 물도 슬퍼지지, 그녀의 노래가 잔잔할수록 수도꼭지의 물은 도무지 나을!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녀는 어쩌면 그날을 추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  
만들기 위해 같이 마시던 커피잔을 훑쳐온 날, 추억을 위해 침대의 한 자리를 비워  
그날부터 그는 깊은 우물 속에 들어앉아 버렸는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그렇싸하게 목소리를 흉내내며 하루 온종일 찾아냈는걸. 그녀가 분간조차  
깜깜한 어둠 속에 내려앉아서 말이야. [A] 에디터 기낙경

**Ryan Schneider** 라인인 슈나이더는 메릴랜드 예술 대학 출신으로 현재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 마성과 고요함을 두루 갖춘 감정의 정취를 보여주는 그림이 특징이다. 그에게 페인팅은 동적 에너지 자체, 생생한 색깔의 패턴과 인물들, 공간을 대하는 개성과 배열 방법의 독창성도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작품은 사랑과 이별 등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 덕분에 그의 작업들은 관객들에게 사적인 순간을 훑쳐보는 인정으로 진화해버린다. 그의 작품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이엠티 아트에서 열리는 <데이 투 데이(Day to Day)>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